

학제간 장벽 넘어 연구 활발...인프라 구축은 미흡

“불교는 통섭 아닌 것이 없고 통섭인 것도 없다.”
학문간 연구, 지식의 통합 등으로 풀이되는 '통섭'이 최근 우리 사회와 학계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지만 통섭이라는 용어의 출처와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아직 불교계 내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통섭을 단순히 '학문의 비법'이나 '학문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진리'라는 좁은 개념에서 벗어나, '학문 간의 통합과 전파'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그 개념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불교 핵심 사상이 '연기(緣起)'가 통섭의 기본 정신이라고 한다면 모든 불교가 통섭이고, 그러면 불교학 연구 분야도 통섭으로 정의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는 통섭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불교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접촉을 시도하는 '응용불교'를 통섭의 한 예로 볼 수도 있다. 응용불교학이란 불교의 교리와 관점을 다른 학문과 연계해 새로운 학문적 성과를 생산해내는 연구 방법론을 말한다. 여기서는 '통섭'의 개념을 학제간 연구 혹은 학문의 경계를 지운다는 의미로 보고, 불교가 여러 학문들과 어떻게 공통점을 찾고 '상생(相生)'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불교계 '통섭(統攝)' 어디까지 왔나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이 지난 2월 봉은사에서 개최한 '제3차 불교와 상담 워크숍' 현장. 이 자리에는 불교학자와 심리학자, 정신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불교와 상담심리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펼쳤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기독교와 '대화'의 장 마련

비교종교학

여러 종교의 특성 의미 등을 학문적으로 접근해 비교 연구하는 비교종교학은 기독교 등 서구 종교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간 대화' 역시 넓은 의미의 통섭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기독교서회(회장 김용표)와 한국기독교사상학회(회장 이종오)가 지난해부터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해, 불교와 기독교의 '학문적 대화'의 장을 열고 있다. 첫 학술회의에서 '부처와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짚어 본 단계는 올해 '해탈과 구원'이라는 주제로 각 종교의 지향점에 대해 학문적 이해를 시도했다. 김용표 교수는 "종교간 대화는 의견적인 협력을 위한 대화와 비교종교학적 이론적 대화, 실증적 영적 대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며 "교수협의회가 학술회의를 개최한 것은 비교종교학적 대화를 학술을 제시함으로써 종교 간의 지적(知的) 이해와 본질 탐색을 추구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종오 교수는 "종교간의 학문적 대화는 단순히 자신의 종교를 상대에게 이해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각 종교가 지향하고 있는 바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자기 종교를 비판적으로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공동연구 시스템 구축 시급

불교적 '통섭'을 위해서는

1980년대 말 학제 간 연구가 학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면서도 불교계에서도 불교생태학, 불교 윤리학, 불교여성학 등이 연구 분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간의 연구 성과와 연구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학제 간 연구를 위한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해주 스님(동국대 불교학과)은 "불교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접촉을 시도하는 응용불교학 논문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지만 아직 학자 개인의 관심사에서 출발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불교와 다른 학문의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단체나 연구팀 등을 통한 공동연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002년부터 격년으로 열리고 있는 한국불교학 결집대회를 불교학의 연구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은 물론 불교와 다른 학제 간의 공동연구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008년 열리는 제4회 한국불교학결집대회의 회장을 맡은 이병래 교수(충남대)는 "결집대회를 통해 불교의 학제 간 연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형 기자 snoooy@buddhapia.com

환경·생태학 분야 관심 높아

불교와 과학

불교의 학제 간 연구 중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바로 불교생태학이다. 환경이 전 지구적인 관심사로 떠오름에 따라 불교와 환경, 불교와 생태학 관련 연구가 활발해진 것이다. 오늘날 지구 환경과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르침을 부처님 가르침에서 찾고자 하는 불교생태학은 다른 학문에 비해 연구 논문도 적지 않고, 관련 단체도 운영되고 있다. 이시우 박사는 천체물리학과 불교의 관계를 살핀 <천문학과 불교의 대화>를, 우희종 교수는(서울대)는 생명과학과 선(禪) 사상의 공통점을 살핀 <생명과학과 선>을 각각 펴냈다. 카오스 이론과 불교 사상을 연구해 온 김용은 교수는 <카오스와 불교: 불교에서 바라본 과학의 본질과 미래>를 통해 카오스 이론의 특징 중 하나인 프랙털이 불교에서 말하는 '일즉다 다즉일(一即多 多即一)' 사상과 일치한다고 주장해 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불교 수행-심리치료법 접목

불교와 상담·심리학

불교생태학, 서재영 조계종 불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선의 생태철학> 등이 있다. '과학과 불교' 역시 꾸준한 연구가 이뤄지는 분야다. 서양에서는 명상이나 선 수행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물인 <달라이 라마, 과학과 만나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현대 신경과학과 중앙 불교사상의 만남> 등은 뇌 과학을 불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국내에서도 불교와 과학의 접점을 찾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이시우 박사는 천체물리학과 불교의 관계를 살핀 <천문학과 불교의 대화>를, 우희종 교수(서울대)는 생명과학과 선(禪) 사상의 공통점을 살핀 <생명과학과 선>을 각각 펴냈다. 카오스 이론과 불교 사상을 연구해 온 김용은 교수는 <카오스와 불교: 불교에서 바라본 과학의 본질과 미래>를 통해 카오스 이론의 특징 중 하나인 프랙털이 불교에서 말하는 '일즉다 다즉일(一即多 多即一)' 사상과 일치한다고 주장해 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그동안 꾸준히 시도돼 왔다. 조계종은 2000년 종단 내에 '불교상담개발원'을 설치하고, 불교에 맞는 상담활동과 이론, 기법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창립과 함께 매년 현장에서의 상담 경험과 상담 이론 연구 성과를 나누는 '불교와 상담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불교와 상담·심리학 연구를 위한 학회도 잇달아 창립했다. 불교의 수행법과 서양의학인 심리치료를 접목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월 발족한 한국명상치료학회(회장 인경)와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중동대표 미산)는 불교학자와 정신의학 및 심리학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두 단체 모두 정기학술회의와 월례발표회, 논문집 발간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쌓아갈 예정이다.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원장(전현수신경정신과)은 "21세기는 동양의 전통과 서양의 과학이 만나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통합의 시대"라며 "동양 정신문화의 정수인 불교와 서양 의학의 심리치료의 접목과 통합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IP!
'통섭'이란?
통섭(統攝)이란 용어는 지난 2005년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 교수(하버드대 석좌교수)의 저서 <컨실리언스(consilience)>를 최재천 교수(이화여대)가 '통섭'으로 번역하며 우리 사회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은 단어다. '큰 줄기'라는 뜻의 '통(統)'과 '잡다'는 뜻의 '섭(攝)'이 만나 이뤄진 이 단어를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전체를 도맡아 다스림'이라고 풀이한다. 지난해 이화여대는 '통섭학'이란 연구소를, 서울대는 '범학문통합연구소'를 각각 개원하는 등 최근 학계에서는 통섭을 학제 간 연구, 학문간 연구, 지식의 통합 등 다양한 뜻으로 활용하고 있다. 학자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다산 정약옹 등을 대표적인 '통섭형 학자'로 꼽는다.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내 한마음 깨우치면
오늘의 네마음이 영원한 오늘이요
부처님 오신날일세

원장 대행 / 주지 해원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한 마음 선원

본문 : 경기도 연성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TEL : 031-470-3100 /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 국내지원 ◆

- 경원선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곡 4구 산 5-2
TEL : (043)677-9000 / FAX : (043)6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
TEL : (054)727-3100 / FAX : (05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 (051)403-7077 / FAX : (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 (062)373-8801 / FAX : (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 (052)295-2335 / FAX : (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 : (053)767-3100 / FAX : (053)765-1600
- 중부경남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1-1
TEL : (055)045-9900 / FAX : (055)046-2179
- 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 (055)746-8163 / FAX : (055)746-7825
- 공주지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152-3
TEL : (041)852-9100 / FAX : (041)852-9105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우천동 13-1
TEL : (054)232-3163 / FAX : (054)241-350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95-7
TEL : (043)259-5599 / FAX : (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 2동 1304
TEL : (033)651-3003 / FAX : (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 (055)643-0643 / FAX : (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TEL : (051)284-1771 / FAX : (051)284-1770
- 문경지원 경북 문경시 읍내동 592
TEL : (054)655-8871 / FAX : (054)656-1989

◆ 해외지원 Overseas Branch ◆

- New York (미국 뉴욕총리서 지원)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 : (1-718)460-2019 / FAX : (1-718)936-3974
- Washington D.C. (미국 핵심선 지원)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 : (1-703)660-6166 / FAX : (1-703)560-5598
- Los Angeles (미국 LA 지원)
193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 : (1-323)766-1316 / FAX : (1-323)766-1916
- Chicago (미국 시카고 지원)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 : (1-847)674-0811 / FAX : (1-847)674-2280
- CANADA (캐나다 지원)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 : (1-416)750-7943 / FAX : (1-416)701-1359
- Buenos Aires (아르헨티나 북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 cp(1406) Cap. Fed. Rep. Argentina
TEL : (54-11)4921-9286 / FAX : (54-11)4521-9286
- Tucuman (아르헨티나 부부엔 지원)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cp(4107) Tucuman, Rep. Argentina
TEL : (54-381)425-1400
- GERMANY (독일 지원)
Broichardt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 : (49-2131)969551 / FAX : (49-2131)969552
- THAILAND (태국 지원)
86-1 soi 4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TEL : (66-2)391-0091
- Sao Paulo (브라질 상파울로 지원)
R. Newton prado,3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Brasil
TEL : (55-11)3337-5291